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보 도 자 료	■ 국립중앙박물관 2020- 31 ■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정미연 TEL 02-2077-9556 myjung83@korea.kr
	■ 2020. 5. 12.(목) 배포 ■ 따로 붙임: 사진 자료 ■ 총 3매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최초공개! 복福과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에도시대 <포도다람쥐병풍>

- 일본실 상설전시 정기 교체 -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5월 6일 재개관을 맞아 올해 첫 일본실 상설전시 교체를 진행하였다. 이번 정기교체에서는 2017년 구입한 에도시대 19세기 작품 <포도다람쥐병풍(葡萄栗鼠圖屏風)>을 최초로 공개한다.

<포도다람쥐병풍>은 일본 에도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남화가南畫家¹⁾인 다니 분초(谷文晁, 1763-1841)가 1834년에 제작한 6폭 병풍 한 쌍이다. 먹의 농담을 조절하며 포도나무 줄기와 대나무를 대담하게 표현하고 금가루를 뿌려 세부를 장식했다. 세밀하게 묘사된 털과 쫓긋 세운 귀를 가진 다람쥐가 눈길을 끈다. 여백을 활용해 서정적인 느낌을 준다.

포도와 다람쥐는 일본에서 복福과 다산多産, 장수長壽를 의미하여 회화, 공예품 등 다양한 미술품의 주제로 애호되었다. 포도와 다람쥐는 조선시대 예술품에서도 자주 묘사되었는데, 다니 분초는 서양화와 조선회화 등 다양한 분야의 회화에 관심이 많았고 조선시대 포도그림을 모사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이 병풍은 화가의 조선회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정기교체에서는 후지이 간분(藤井觀文, 1888-1973)이 1938년 제2회 신문전新文展에 출품했던 칠기 <포도다람쥐상자(栗鼠手篋)>도 함께 선보인다.

1) 중국 남종화南宗畫를 일본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문인화文人畫

이 상자는 붉은 칠 바탕에 나전螺鈿으로 포도알을 표현하고 침금沈金기법으로 다람쥐를 표현했다.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된 다섯 마리의 다람쥐는 사생寫生을 중시한 작가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

이번 정기교체는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중이다. 직접 박물관을 방문할 수 없는 관람객도 이번 정기 교체품을 안방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담당 학예사가 유물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큼 다가온 봄(春), 포도와 다람쥐라는 주제로 새롭게 단장한 일본실에 오셔서 풍요로운 생명의 기운을 담백 느껴보시길 바란다.

상설전시관 세계문화관 일본실은 연중 무료 관람이며, 이번 공개는 2020년 8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전시품 설명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NfKJhXCASsY>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자료와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정미연 학예연구사(02-2077-9556), 이정은연구관(2077-9551), 한수부장(2077-9550) 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